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잊혀진만주코뮌

제 2 차세계대전이시작된곳

프란체스코달레산드로

프란체스코달레산드로
잊혀진만주코뮌
제 2 차세계대전이시작된곳
2020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감독인 프랭크 카프라 (Frank Capra) 는 미군의 의뢰로 “Why We Fight” 라는 7 부작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만들었다. 이 영상은 나치 선전 영화에 대응하고, 군인과 시민들에게 미국의 참전을 정당화하고자 만들어졌다.

7 부작의 첫 영상인 “전쟁서문”은 2 차 세계 대전의 기원을 1929 년부터 1932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본의 만주 침략과 정복에 둔다. 하지만 같은 시기 만주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상에 나오지 않는다. 이 일은 당시 만주를 다루는 많은 책과 기사들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당시 만주에서는 일본군, 조선총독부군¹, 중국군, 소련군이 마주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는 북방군, 즉 1920 년대 후반 북만주에 세워진 아나키스트 코뮌의 군대와 싸워야 했다. 만주 코뮌은 1911 년 바하 캘리포니아에 서벌어진 마군주의² 혁명이나, 1918 년 우크라이나의 마호노주의 반란이나, 1936 년의 스페인 혁명만큼이나 중요한 혁명적 실험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회 실험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차지 하였던 중요한 역할은 간혹 무시되거나 과소 평가된다.

수세기 동안, 만주는 조선,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부터 온 이민자와 추방자들의 터전이었다. 1910 년, 일본 정부는 조선을 병합했다.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 이주민 중 상당수의 아나키스트들이 이주 공동체에서 매우 능동적으로 활동했다. 1920 년 대 중반까지, 조선인 이민자들은 세계의 자치구, 정의부·참의부·신민부를 건설했다. 이 자치구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중국군벌들로부터, 만주 지역 봉건호족들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들은 지역 민의 보호, 중국 정부의 약화,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물리적 거리, 산악 지형의 험난함 등에 힘입어 수년간 정부나 군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자치구들은 자기 방위를 위한 군사력으로서 대한 독립군과 북로군정서 등을 갖추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해방구를 지켜내었다. 북로군정서는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다. 김좌진은 일본의 조선 식민 통치를 혐오하고, 거세게 저항하였다. 그는 1920 년 대한 독립군에 가입하여 일본군에 대한 게릴라 전의 과정에서 대단한 통솔력을 보여주었다. 그 당시 김좌진은 그의 친척 김중진에 의해 아나키즘을 접하게 되었다.

1925 년,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김좌진, 김혁, 최호, 나중소 등의 게릴라 투사들이 만주의 신민 지역에 새로운 자주 독립적인 민사회를 조직할

¹ Korean Army. 당시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상태였던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조선총독부 주둔군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당시 조선총독이 주둔군에 대한 독립적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고, 출병권마저 가지고 있었기에 일본군과 구분할 필요는 있을 듯하다. -역자주

² 멕시코 혁명기 리카르도 플로레스 마곤 (Ricardo Flores Magon) 에 의하여 주장된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사상. EZLN 운동이 마군주의의 형제적이라고 자칭한다. -역자주

것을 제안했다. 게릴라투사들은이제안을수인하고실현하기위한작업을 시작했다. 김종진, 정진등상당수아나키스트들이이프로젝트의시작당시부터함께했다. 이프로젝트는자기조직에근거하였기에, 상당수지역농민과노동자들역시이에빠르게호응하였다. 아나키스트들은김좌진을한인마흐노라부르기시작했다. 이는김좌진이마흐노와마찬가지로군사적역량과자주독립적생산-소비자협동조합및노동자농민의자유와평등의원칙을기반으로한자기방위조직의건설에대한헌신을동시에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노동자와농민들은스스로자주경영과경제적협력, 생활에필요한조직적구조의체계를건설할수있었고, 아나키스트들은이를도왔다. 이들은지속가능한자유지주의적혁명이되리라기대하며코뫼를만들었다. 이코뫼는다양한생산역량을가진이들사이의협력을전제로한자치를중요한가치로바라보았다. 이코뫼의목표는농장의기동과운영, 집단적구매와판매, 상호부조적사회의건설등협력적활동들을실천하는것을목표로두었다. 나아가이들은초중등학교를설립하면서문화적, 교육적활동역시증진되었다. 이로써필수적인생산기술과학술적지식에관한개인적·사회적발전역시확보할수있었다.

1929년신민부는그이름을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로바꾸었다. 마을총회에서는풀뿌리토론과결정들이이루어졌고, 그들은지역총회에, 연방총회에대표단을파견했다.

신민부에는자기방위, 농업, 교육, 재정, 선전, 청년, 공중보건, 총무의 8개부서가있었다. 모든대표단들은평범한노동자와농민이었고, 그들은다른노동자들의임금과비슷한임금을받았다. 그들은행정부에서복무하는동안어떠한특권도가지지않았다.

한국의아나키스트역사학자인하기락은한족총연합회가이러한구조가아나키스트적이상을강화한다고바라보았다고전한다. “모든회의는구성대중에대한예산의집행계획을결정하고, ‘역량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라는원칙에따라예산서를승인했다”

신민코뫼는흑룡강등의인접지역으로확장했고, 아무르강을동쪽경계로하고, 송아차허를서쪽경계로하며, 남쪽으로는하얼빈 — 훈춘이위치한삼각지대를확보할수있었다. 그강역은 35,000 제곱킬로미터에달하고, 2 백만명가량이거주했다.

하지만 1930년대초, 코뫼의상황은악화되었다. 일본제국은 35,000명의군인으로만주를침공하여만주국이라는괴뢰정부를세웠다. 모스크바의지령을받은조선공산당은코뫼내부로잠입하였고, 그아나키스트지도자인김좌진을체계적으로암살했다. 김좌진은 1930년 1월살해되었다.

일본군, 조선공산당, 만주국군등이코뫼를안팎에서포위했고, 결국이를파괴하였다.

살아남은아나키스트들은숨어들어가지하에서계릴라전을지속하였다. 1945년전쟁이끝난후, 아나키스트들은남북모두에서탄압을경험해야했다. 그럼에도아나키즘의전통은다시한번반도의급진주의자들에게영감을주기시작했다.

지난십여년간이중요한혁명적사건에관한책과기사들이다소출판되었지만, 이에대한역사적연구는더많이필요하다. 이운동은 20세기에발발한자유를향한투쟁에관한, 급진적운동에관한아나키스트의역사에서중요한부분이기때문이다.

이러한역사에대해아는것은우리가특권계급에저항하고, 세계와우리의정신을그들의영향권바깥으로쫓개어내는시도를함에서새로운방법을상상할수있게한다.